

Robert Vannoy 박사 , Kings, 강의 10

© 2012, Robert Vannoy 박사 , Perry Phillips 박사, Ted Hildebrandt

유다에서 나온 선지자, 아히야의 경고, 바아사 왕조, 오므리 와 아합

검토 – 유다에서 나온 선지자 – 열왕기상 13장

우리는 열왕기상 13장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다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이 북쪽으로 벰엘로 나와서 여로보암의 제단을 향하여 예언하고 무엇보다도 요시야라 불리는 왕이 장기적으로 예언하는 장을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뼈를 그 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예측을 입증하는 몇 가지 단기 예측도 충족되었습니다. “D”, “아히야의 경고, 열왕기상 14:1-20”을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질문은 지난번에 다룬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유다 출신의 하나님의 사람이 북왕국의 늑은 선지자에게 속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북방의 늑은 선지자가 참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유다 출신의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에서 여로보암과 대결하여 행한 일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동정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람, 곧 남쪽에서 온 경건한 사람과 어떤 교제를 갖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마도 고립되어 있었고 그곳의 다른 신자들과 많은 접촉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그는 거짓말을 한다. 제가 보기에는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그가 거짓말을 했을 때, 그는 진정한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언을 직무라기보다는 기능으로 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제가 보기에 예언은 주님께서 어떤 개인의 입에 자신의 말씀을 넣어서 그가 말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입을 열 때마다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노인은 비록 그런 일을 했고 선지자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한 경우에 그는 죄를 짓고 분명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께서 그 길로 돌아가지 말며 거기서 누구와도 함께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여호와께 직접 지시를 받았으나 오직 그 말만 들었더라 이 노인은 계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받은 계시와 모순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순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는 그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에는 한 가지만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에게에는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 모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유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늙은 선지자는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잠들지 못하리라.”고 말함으로써 참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자의 공격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그는 다시 진정한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확실히 매우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악된 행위였습니다. 당신은 참된 선지자가 될 수는 있지만 선한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보통 선지자는 경건한 사람이지만, 당신도 참된 선지자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발람은 이방 점쟁이였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말하는 모든 것이 항상 선지자인 것은 아니라는 차이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말을 잘못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언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말하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이까?”라고 물었을 때 나단을 예로 들겠습니다. 그리고 Nathan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해보세요.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신의 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돌아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집을 지을 것입니다.”-왕조의 의미에서. 그래서 Nathan이 잘못 말한 거죠. 다윗이 선지자로서 말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남자로서 말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돌아가서 자신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엘리사와 조롱하는 청년들과 곰들 그것은 선지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는 것이며, 그 선지자가 조롱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사무실 일이에요. 엘리사의 경우에는 그가 엘리야의 후계자임을 인정하고, 비록 대머리라고 조롱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무례함은 그 이상으로 그의 직무와 직무에까지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2절: “엘리사가 거기서 뱀엘로 올라가니라. 그가 길을 가고 있는데 동네에서 젊은이들이 나와서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고 조롱하였다. 그들은 '올라가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돌이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매 곰 두 마리가 와서 42명의 소년을 죽였느니라.” 제가 NIV 스터디 바이블에 넣은 코멘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엘리사는 레위기 26:21-22의 언약의 저주와 유사한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는 불순종과 배도를 계속할 경우 온 나라에 닥칠 심판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엘리사의 첫 번째 행위는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따르게 될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따르는 그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은 여리고에서 물이 고침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질문 중 하나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분의 사역의 시작인 그분의 첫 번째 행동은 그분을 등지는 사람들에게 언약의 저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올 축복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엘리사를 반대했던 젊은이들의 관계나 태도,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나라의 태도에 어떤 상징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행동은 자신을 조롱한 누군가에게 복수하는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그 의미는 그의 사무실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주님을 향한 그 나라의 태도를 반영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주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확실히 엘리사에 대한 태도는 주님을 향한 태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텍스트는 그 내용을 열어 둡니다. 그들이 죽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확인하고 다음 주에 그것에 대해 논평하기 위해 기억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4절입니다.

D.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경고하다 – 열왕기상 14장

열왕기상 14장에 나오는 아히야의 경고 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왕국을 주겠다고 말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이제 왕국을 그에게서 빼앗길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7절과 14장 이하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았느니라. 내가 나라를 다윗 의 집에서 찢어 네게 주었으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내 눈에 옳은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니라 당신은 당신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 곧 금속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었도다 당신들은 나를 화나게 했고, 나를 당신들의

등뒤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내가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다 멸절하리라 사람이 똥을 불사르듯 여로보암의 집을 다 없어질 때까지 불사르리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들 중에 성읍에서 죽은 자들을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들을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배경은 여로보암이 자신의 아픈 아들에 관해 엘리야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는 아내를 변장시켜 보냈고, 그것으로 엘리야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도시에 발을 들이면 그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흔히 '계약소송'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성찰을 얻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 언약 소송과 아히야가 선언 하는 판결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7절과 8절에서 아히야는 여호와의 은혜로운 행동을 낭송합니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느니라. 그리고 나는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너에게 주었다.”

히타이트 조약과 성경적 언약 자료 사이의 유사점을 잘 아시는 분들은 히타이트 조약이 역사적 서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운 행위에 관한 성경의 언약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하라, 이것 저것 하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언약에서 돌아섰을 때, 이스라엘을 다시 언약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선지자가 보냄을 받을 때, 선지자들이 예언서에서(이제는 예언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말하는 것임)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언약 형식을 반영하는 일종의 형식을 사용하십시오. 그들은 먼저 주님의 은혜로운 행적을 낭송할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여기 있고, 당신이 한 일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신실하고 은혜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외면하고 불순종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 뒤 선고를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7장 과 8장에서 주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b와 9절에는 “그러나 너는 내 종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느니라. 당신은 당신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었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열왕기상 14장 10절 이하에 있는 문장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같이 하려 하노라.” 그래서 저는 아히야가 전하는 메시지의 형태에서 그 점을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D'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경고한 내용' 이었습니다 .

E. 나답의 통치 – 열왕기상 15:25-28 시트의 “E”는 “나답의 통치, 열왕기상 15:25-28”입니다. 14장과 15장의 초반부에서는 르호보암과 함께 유다로 다시 전환합니다. 그러나 15:25에는 이렇게 읽습니다. “유다 왕 아사 제이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그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나답은 단지 2년 동안만 통치했습니다. 그에 대해 언급하는 구절은 25-28절뿐입니다. 그는

실제로 중요한 왕이 아니며, 소위 왕궁 반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에서 살해당했습니다. 27절에 보면, “ 잇사갈 족속 아히야 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의 성읍 킵돈 에서 그를 죽였으니 그때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그 성을 에워쌌더라.” 바아사는 유다 왕 아사 제3년에 나답을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2.

바아사 왕조

1. 바아사의 계승

그래서 우리는 "2", " 바아사 왕조 "로 이동하고 거기에 몇 가지 하위 요점이 있습니다. "a"는 "그의 계승"입니다. 나는 이 바아사 왕조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계승은 열왕기상 15:27-30, 그 다음 33, 34절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바아사는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로보암의 집이 멸절될 것이라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여로보암의 온 집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 “여로보암에게 호흞할 자를 남겨 두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명하신 말씀과 같이 그가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 비. 바아사의 유다 전쟁 – 왕상 15:32

좋습니다. “b”는 “유다에 대한 그의 전쟁, 왕상 15:32”입니다. 우리는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그들의 통치 기간 동안 전쟁이 있었다”는 간략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방 아사의 통치에 관해 읽을 때 그 내용을 더 많이 읽게 됩니다. 바아사는 남쪽에서 아사와 싸웠습니다. 그러한 적대감의 계기는 북부 사람들이 승배를 위해 남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여로보암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염려했고, 바아사가 왕위에 오를 때에도 그는 여전히 그것에 대해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논의한 것처럼, 바아사가 남쪽을 공격했을 때, 바아사는 아사를 자극하여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의 벤하닷 과 동맹을 맺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바아사는 남쪽에 가하던 압력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유다에 대한 그의 전쟁이었습니다.

씨. 예후의 예언 – 열왕기상 16:1-7 “드,” “예후의 예언, 열왕기상 16:1-7.” 이제 여기서 예후는 “하나니 의 아들 예후”라고 불립니다. 나중에 왕이 된 예후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 예후는 선지자로서 바아사에게 자기 집도 여로보암의 집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였더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아사 와 그의 집을 멸하리라 . 내가 네 집을 느밧 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리라 . 바아사 에게 속한 자들 중에 성읍에서 죽은 자들을 개들이 먹을 것이요 들에서 죽은 자들을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라.”

디. 엘라의 통치 – 왕상 16:8

“d”는 “엘라의 통치, 열왕기상 16장 8절 이하”입니다. 그는 바아사 의

아들이었지만 중요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2년 동안만 통치했습니다. 8절을 보면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이년 동안 다스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e", " 시므리의 찬탈, 왕상 16:9-13" 이라는 또 다른 혁명이 나옵니다. 엘라의 신하 중 하나인 시므리가 그를 대적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시므리가 들어와서 그를 쳐죽이고... 그러므로 시므리는 엘라의 신하 중 하나 였습니다. 그는 그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는 그를 죽인 다음 바아사가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합니다. 그는 바아사의 집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그가 바아사의 온 가족을 죽였느니라. 그는 친척이든 친구이든 남자 한 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므리의 통치는 매우 짧았습니다. 그는 7일 동안 통치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칠 일 동안 통치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살했습니다. 18절을 보면 오므리가 시므리가 있는 디르사를 향해 진군할 때, 17절을 보면 “오므리 와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깃브돈 에서 떠나 디르사를 에워싸니라. 시므리는 그 성이 함락된 것을 보고 왕궁에 들어가서 자기 주위에 있는 왕궁에 불을 놓았더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죽였느니라.”

에프. Interregnum, Four Years 그리고 시트의 "f"는 "I nterregnum , Four

Years"입니다. 시므리가 죽은 후에는 오므리 와 디브니 사이에 왕권을 놓고 다투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오므리가 마침내 승리하여 왕이자 통치자로 선포될 만큼 충분히 권력을 강화하기까지는 4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열왕기상 16장 15절을 보면 “ 유다 왕 아사 제27년 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칠일 동안 왕이 되니라”라는 말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므리는 자살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므리가 왕이 된 16:23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다 왕 아사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그는 1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중 여섯은 디르사에 있었고, 그것은 23절입니다. 따라서 아사의 27년 과 비교하면 31년이 됩니다 . 그래서 오므리 와 디브니 사이에 4년 동안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두 파로 나뉘어 절반은 디브니를 왕으로 지지하고 나머지 절반은 오므리를 지지했습니다 . 그러나 오므리의 추종자들은 디브니 의 추종자들보다 더 강했습니다 . 그래서 디브니가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사 왕 31년 에 공식적으로 통치를 시작합니다 . 따라서 누가 실제로 승리하여 왕이 될 것인지에 대한 매우 오랜 기간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므리 왕조

1. 오므리 자신 – 왕상 16:15-28

a. 계승 – 왕상 16:21-22 나. 그의 새로운 자본

좋아, 그것은 우리를 "D"로 내려갑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처음 두 왕조였습니다. "D"는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리고 "D" 아래의 "1"은 "오므리 자신, 열왕기상 16:15-28"입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하위 요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계승, 열왕기상 16:21, 22"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21절과 22절에서는 오므리 와 디브니 사이의 싸움에 대해 읽었고, 실제로 23절에서는 그가 왕이 되었다는 내용을 읽습니다. 당신은 그가 12년 동안 통치했다는 것을 읽었는데, 그중 6년은 디르사에서 통치했는데, 이는 그가 사마리아에서 6년을 통치했다는 뜻입니다. 시트의 "D"는 "그의 새로운 수도"입니다. 24절을 보면 "그가 은 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의 옛 주인 세멜의 이름을 따라 그 산 위에 성읍을 사마리아라 부르니라"고 했습니다. 오므리는 중요한 통치자입니다. 그는 전략적으로 위치한 부지를 선택했습니다. 그곳은 잘 선택되었고, 언덕에 위치하고 방어하기 쉬우며, 북왕국 영토의 중앙에 위치하여 그곳에 새로운 수도를 세웠습니다. 사마리아는 그 시점부터 기원전 722년 포로 생활을 할 때까지 당시 북왕국의 수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빠르게 예루살렘보다 커져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앗수르 군대가 북왕국을 공격해 왔을 때, 사마리아는 3년 동안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점령하기 어려운 도시인 그 도시를 포위했고 결국 항복해야 할 때까지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므리는 새로운 수도를 세웠습니다.

씨. 그의 정치가 "C"는 "그의 정치가"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개요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는 유다와 우정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오므리 시대에 북왕국과 남왕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내용을 읽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갈등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는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은 것으로 보이며 페니키아의 경우에는 그의 아들 아합이 두로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아합에 대한 주석 아래에 “아합이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을 섬기며 그를 경배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오므리와 시돈 왕

옛바알 사이에 맺어진 결혼 동맹이었습니다. 디. 오므리의 중요성

좋아요 “D”는 “그의 중요성”입니다. 열왕기상에는 그에 대해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23-28절, 6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아시리아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733년경 티글라트-빌레셀 3세에 의해 “오므리 땅”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150년 후인 기원전 733년입니다. 오므리는 기원전 880년경에 있을 것입니다. 기원전 733년에 티글라트-빌레셀 3세는 이스라엘을 언급하면서 그곳을 “오므리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살만에셀 3세는 예후를 “오므리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예후는 조공을 바치는 앗수르 통치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있지만 살만에셀은 예후를 “오므리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이는

그가 실제로 오므리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흥미롭다. 사실, 오므리 왕조, 즉 아합 왕조를 멸망시킨 사람은 예후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가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하는 앓수르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의 왕좌에 있기 때문에 오므리의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 메사도 모압 비석에 “ 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여러 해 동안 모압을 멸시하고 메다바 땅을 차지하였더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다바는 여리고 동쪽, 요단 강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경 외의 참고 문헌 중 일부를 통해 성경 본문에서는 오므리에 대해 많이 언급하지 않지만 오므리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강좌 초반에 그것에 대해 말했는데, 성경 본문이 오므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열왕기상 기자가 정치적, 경제적 요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의 문제, 즉 여호와를 향한 이스라엘의 신실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므리 대신에 이세벨과의 결혼을 통해 바알 숭배를 소개한 오므리의 아들 아합에게 거합니다. 당신은 오므리 보다 훨씬 더 많은 아합에 대한 전체 장을 얻게 됩니다. 아합과 오므리의 관계는 이런 의미에서 솔로몬과 다윗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자는 자기 아버지가 세운 왕국을 상속받았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실제로 왕국을 건설한 후에 등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오므리가 이스라엘 북쪽에 중요한 왕국을 세운 후에 등장합니다. 각자는 자기 아버지가 세운 왕국을

상속받았습니다.

2. 아합 – 왕상 16-22 a. 아합의 사람 – 열왕기상 16:29-34 좋습니다. 그러면 시트에 "2"라는 숫자인 아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합에 관한 내용이 꽤 많은 장(16-22 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꽤 많은 하위 요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아와 엘리사의 사역은 대부분 아합 시대에 해당됩니다. 이제 엘리사는 그것을 넘어 아합의 아들들의 시대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먼저 아합의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왕상 16:29-34). “ 유다 왕 아사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많이 행하였더라.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는 것을 작은 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을 섬기고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합은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그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아합 시대에 벤엘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했습니다. 그가 그 기초를 쌓았을 때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웠을 때 막내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인격에 관한 한 그는 이전의 어떤 왕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송아지 숭배를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그것은 거의 하찮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보다 훨씬 더 나아가 바알 숭배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둘째 계명뿐 아니라 첫째 계명도 어긴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여리고 당신은 그가 행한 일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으며 34절은 여리고를 재건축하는 일에 대한 언급으로 끝납니다. 여리고는 정복 이후로 “열린 성”이라 불리는 곳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성을 돌 때 여호와께서 여리고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성벽이 무너졌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호와의 손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다시 요새화하려는 모든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이제 나는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리고는 왜 열린 도시로 남아 있었나요?”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의도는 그 무너진 성벽이 이스라엘이 주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님의 손에서 땅을 받았다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증거나 상징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은 그들의 군사적 전략이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땅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기념물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안전이 군사적 요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열린 도시로

남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안전은 다른 곳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순종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정한 언약의 왕이 아닌 북방 왕이 보좌에 앉게 되었는데, 그는 그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그의 판단으로는 그것이 힘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골칫거리였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합 시대에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했다는 것을 읽었고 나는 그것이 그것을 다시 요새화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를 놓고 문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수아의 저주에 따라 그의 두 아들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호수아 6장 26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일을 말하고 있으며, 여호수아는 26절에서 “이 성을 재건하는 일을 맡은 사람은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그의 맏아들을 희생하여 그 기초를 놓을 것이다. 그가 막내를 희생하여 성문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때를 생각해보면, 사사 시대, 사울 때, 다윗 때부터 솔로몬 때까지, 모든 위대한 시대에도 말입니다. 솔로몬의 건축 활동 이후에도 여리고는 개방된 도시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복시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기원전 1446년으로 본다면 지금은 800년대, 500~600년으로 내려간 셈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요새화되지 않은 도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합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합의 태도가 그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군사

전략과 요새와 군대 등을 신뢰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 아합의 아내 이세벨 – 왕상 16:31 “B”는 “그의 아내, 왕상 16:31”을 의미합니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 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두로 와 시돈은 페니키아 해안의 해상 무역 도시로 번영했습니다. 그 결혼은 아마도 엣바알 과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사이의 동맹과 관련하여 마련되었을 것입니다 .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읽을 수 있듯이 이세벨은 의지가 매우 강하고 무자비한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이 사람들이 두로 와 시돈 에 비하면 낙후된 사람들, 문화가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 하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스라엘에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바알 숭배를 확립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여신 선지자 400명의 핵심을 유지하고 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온 백성을 갈멜산으로 모으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데려오라.” 그래서 그녀는 북왕국으로 수입한 이교 선지자 850명을 공급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나봇의 포도원 문제에 있어서 그녀의 왕권 개념이 성경적이거나 언약적인 왕권 개념과 완전히 반대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합은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도록 설득할 수 없어서 불쾌해했고, 이세벨은 그 일에 개입하여 사법 제도를 남용했습니다. 그녀는 나봇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여 그가 돌에 맞아 죽도록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 재산을 빼앗아 아합에게

줍니다. 바로 그 사건입니다. 물론 아합도 동조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공모가 있었고, 그 사건은 엘리야가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확실히 이번에 북왕국에서 두드러진 인물이었으며 북왕국에 이교 숭배를 도입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왕상 16:32, 33, “사마리아에 건축한 전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 앞에 이스라엘 왕들이 있느니라.”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웠을 때, 그는 여전히 “너를 위하여 새긴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둘째 계명을 어기면서도 부당한 방법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려고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분은 여전히 주님이셨다는 뜻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자 유다 출신의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바아사 가 송아지 숭배를 계속하자 하나님 의 아들 예후가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단지 금송아지가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바알 숭배인데, 그것은 아합에 의해 소개되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주님 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셔서 그것을 반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열왕기의 중심인 열왕기상의 끝 부분과 열왕기하의 첫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에 할당된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나는 바알 숭배가 가나안 입성부터 그리스도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종교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대표했다고 생각한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위기이다.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 참된 믿음이 남아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에도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위대한 시대, 즉 성경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대개 구속사의 큰 전환점을 동반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면, 성경 역사에서 큰 기적이 일어난 기간은 기본적으로 네 번이었습니다. 출애굽 때와 정복 때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에 그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는 그리스도의 생애 동안에 그리고 또한 교회의 초기 시대에 그것들을 얻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의 큰 전환점이며, 구속사의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은 일종의 기적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좋아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Ahab에 대한 논의를 잠시 멈추고 제가 논의하겠다고 말한 것, 즉 오늘 이 이야기의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역사적 이야기를 어떻게 설교하십니까? 잠시 쉬고 돌아오면 처음에는 좀 더 이론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밤에는 그게 전부일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엘리야의 사역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야기한 내용을 좀 더 이론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의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럼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 셰이퍼(Daniel Shafer)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대략적인 편집: Ted Hildebrandt

최종 편집: Dr. Perry Phillips

페리 필립스 박사가 다시 해설함